



교회 소식

1. 그린빌 은혜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3. 점심 식사 후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겠습니다. 울림 소그룹에서 인도해주세요.
4. 2기 새 가족 모임 - 오후 12시 40분, 만남의 방
5. 주빌리 은혜 장로교회 목사위임 & 임직 감사예배
- 오늘 오후 4시,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
6. The Youth 겨울 수련회: *한걸음, A Single Step with the Lord*
일시: 2026년 1월 16-18일 / 장소: Grace Retreat Center (콜럼비아 소재)
본문: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회비: \$50 / 강사: 정순재 목사 (에덴스 장로 교회)

12월 14일 주일 - The Youth 겨울 수련회 Fundraising

과배기 호떡 등 판매 예정



방문자 & 성도 동정

1. 방문: 최하늘 (애틀란타), 김선희 (이사), Danny (뉴욕)
2. 출타: 정종엽 집사 (한국), 김관복 집사 (한국)
3. 전시: 김승아 자매 개인전 - Angelica Freeman Lux Aterna
Hampton Gallery LTD (3110 Wade Hampton, Suite 10 Taylors)
2025.11.21 - 2026.1.3
4. 12월 생일: 정지엘 (5)

12월 주요행사

- | | | |
|----|--|-------------------------------------|
| 1주 | | 12.1 Youth 공동체 리더모임 / 12.3 사무행정팀 모임 |
| 2주 | | |
| 3주 | | 12.14 2025 결산 및 2026 예산 모임 |
| 4주 | | 12.21 성탄 예배 |
| 5주 | | 12.28 공동 회의 / 12. 31 송구영신 예배 |

지난주 헌금

십일조: 320	감사: 250	특별:	주일: 20	합계: 590
----------	---------	-----	--------	---------

제 15권 45호

2025.12.07

은혜교회

Korean Grace Church of Greenville

은혜가 머무는 삶의 자리

A place in life where grace resides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9-10)

담임목사 김 혁 Rev. Adam Kim, Pastor

(864) 293 2950 / hopesfc04@gmail.com

4A Woodland Ln, Greenville, SC 29615

<http://kqcg.onmam.com>

🏠 1부 주일 예배 순서 (장소: 2층)

말씀.....마태복음 1:1-17.....김 혁 목사
 말씀 선포.....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김 혁 목사
 찬송.....84.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다 함께

🏠 2부 주일 예배 순서

예배 인도자: 김혁 목사 ** 별표는 일어섭니다.

환영 및 광고.....김 혁 목사
 ** 입례 찬송.....5. 이 천지간 만물들아.....다 함께
 ** 신앙고백.....하이델베르크.....인도자
 찬양.....다 함께
 대표기도.....김 혁 목사
 봉헌.....95.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다 함께
 말씀 교독..... 마태복음 1:1-17.....김 혁 목사
 말씀 선포.....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김 혁 목사
 성찬식.....268.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김 혁 목사
 (Vision Trip 영상)
 ** 폐회 찬송.....84.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다 함께
 ** 축도.....김 혁 목사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4.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짓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Q. Can any mere creature pay for us?

답: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A. No. In the first place, God will not punish another creature for the sin which man has committed. Furthermore, no mere creature can sustain the burden of God's eternal wrath against sin and deliver others from it.

✚ 칼럼: Vision Trip 소감문 (이수현)

2. 영적 대각성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놀라고 감동받은 것은 바로 '극진한 섬김'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희 팀은 단 한순간도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듯, 귀한 분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며, 김혁 목사님께서서는 이들이 "영적 대각성의 후예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3. 영적 대각성운동의 후예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먼저, 오늘날 다시 한 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장소, 즉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주도 인물)의 교회와 주변 교회들을 둘러보았을 때,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지 않은 교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점차 성경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가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저는 앞서 만났던 헌신적인 분들처럼 "영적 대각성의 후예"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먼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하여'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제 삶의 핵심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길고 다소 지루했을지 모르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여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예배위원 및 섬기는 분들

* 다음주 기도: 양진석 청년

✚ 새벽기도 말씀 본문 (오전 6시)

12/9 화요일	12/10 수요일	12/11 목요일	12/12 금요일	12/13 토요일
롬 12:9-21	롬 13:1-7	롬 13:8-14	롬 14:1-12	롬 14:13-23